
아세안 이슈 브리프 필리핀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목 차

국가개요	1
□ 국가 개요	1
□ 교육 주요 지표	1
□ 학제구조 요약	3
I. 개관	5
□ 국가 개관	5
□ 한국과의 관계	5
□ 교육개관 및 특징	8
II. 교육제도	11
□ 학제개요	11
□ 고등교육제도	18
□ 평생교육/직업교육	31
III. 교육정책이슈	33
□ 국가이슈	33
□ 영유아·초·중등교육정책 및 이슈	33
□ 고등교육 정책 및 이슈	35
□ 한국과의 시사점 및 정책 제안	39

□ 국가 개요

항목	내용	비고
국가명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대통령제(6년단임제), 17개의 지역(Region)과 82개의 주(Province)
수도	마닐라(Metro Manila)	
공식 언어	필리핀어(Filipino), 영어	지방명인 타갈로그어(Tagalog) 대신 전국 표준어란 의미에서 필리핀어라고 명명
인구	112,729,484명(2024, 필리핀통계청)	0~14세 인구 32,283,392명, 전체의 28.6%
정치체제	행정부: 6년 단임제 입법부: 양원제(상원과 하원) 사법부: 3심제(대법원이 최고기관)	상원의원(24명)은 임기 6년, 하원의원(318명)은 임기 3년
고등교육 거버넌스	고등교육위원회(CHED)	대통령실 직속 독립기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는 교육부(DepEd), TVET은 기술교육기능개발청(TEXDA)이 담당
고등교육 특징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어 운영 및 관리 구조가 다름	공립은 주립대학과 지방정부 대학으로 나뉘고, 전체 대학의 약 80%인 사립은 종교계와 비종교계로 나뉨

□ 교육 주요 지표

학령인구 수 (초중등/고등)	초·중·등 학령인구: 약 920만 명 (초등 약 430만, 중·고등 약 490만) 고등(대학) 학령인구: 약 430만 명 (18~22세 대학 진학 연령대 기준)
문해율	성인 문해율 (15세 이상): 약 98% (DepEd, 2020)
	청년 문해율 (15~24세): 약 100% (World Bank, 2022)
교육 예산 규모	GDP 대비 총 교육예산 비율 (%): 4%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예산 비율 (%): 20%
고등교육 이수율	34.6% (UNESCO, 2024)

※25~34세 인구 기준		
교육재정 ¹⁾	초·중등 교육 예산 (비중): 전체 교육재정의 62.1% (기초 및 중등교육 위주 집중) ₱745.3B	
	고등교육 예산 (비중): 12.3% ₱147.2B	
	기타 교육 분야 : 학교설비, 학습자지원프로그램 전체 교육예산 ₱1.199T (DBM 2026)	
학업 성취도 (PISA 최소 숙달도 도달 비율)	과학	23%
	읽기	24%
	수학	16%
학교 밖 아동·청소년 비율(2023)	초등교육 : 11.6%, 전기 중등교육 : 13.1%, 후기 중등교육 : 22.4% (2024)	

▶ 출처: World 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g/>, <https://www.dbm.gov.ph>,
<https://edcom2.gov.ph>, <https://unesdoc.unesco.org/>

- 필리핀은 GDP의 4.4%를 교육 예산에 할애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아동 청소년의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 PISA 성취도에서 필리핀은 81개국 중 77위를 차지했으며 읽기는 79위이었다. 성취수준(Proficiency)에서 16%의 학생만 수학 분야에서 Level 2 성취수준을 기록하여, OECD 평균 69%에 비해 매우 저조했다.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에서 필리핀은 60점 만점에서 14점을 기록할 정도로 낮은 성취도를 보였다. 이러한 성취도 결과로 인해 정부는 이러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배정과 사업을 실시했다.

1) ①교육재정 교육 단계별 분류 :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기타(유아교육 포함)

②교육재정 목적별 분류 : 취약계층 지원(EEF), 교사연수, 교육행정 등

□ 학제구조 요약

ENTRY AGE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PROPOSED K to 12	KINDERGARTEN			GRADE SCHOOL						JUNIOR HIGH SCHOOL				SENIOR HIGH SCHOOL
	K		G1	G2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2
7 YEAR ELEMENTARY	PK	K1	K2	G1	G2	G3	G4	G5	G6	G7	HS1	HS2	HS3	HS4
	K1	K2	G1	G2	G3	G4	G5	G6	G7	HS1	HS2	HS3	HS4	NA
6 YEAR ELEMENTARY	PK	K1	K2	G1	G2	G3	G4	G5	G6	HS1	HS2	HS3	HS4	NA
	K1	K2	G1	G2	G3	G4	G5	G6	HS1	HS2	HS3	HS4	NA	NA
PK : PRE KINDER			K: KINDER						K1 OR K2: KINDER 1 OR KINDER 2					

도표 4 필리핀 정부 Source: <http://www.gov.ph/k-12>

- 필리핀은 2013년 K-12 교육개혁을 통해 기존 10년제(초등 6년 + 중등 4년)에서 현재의 13년제(유치원 1년 + 초등 6년 + 중고등 6년) 체제로 전환했다. 공용어는 필리핀어(Filipino)와 영어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어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이 특징이다.

- 학제 구조 (K-12 체제)

단계	학년	기간	특징
유치원 (Kindergarten)	K	1년	만 5세, 의무교육
초등학교 (Elementary)	1~6학년	6년	기초 교육, 모국어 기반 수업(MLE)
중학교 (Junior High School)	7~10학년	4년	일반 교육과정
고등학교 (Senior High School)	11~12학년	2년	진로 트랙 선택 (학술/기술직업/스포츠/예술)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대학교	4~5년	CHED 관할, 의학·법학은 대학원 과정

○ 주요 특징

- 영어 교육: 수학·과학 등 주요 과목을 영어로 수업, 동남아 최고 수준의 영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모국어 기반 교육(MLE): 초등 1~3학년은 지역 모국어로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Senior High School: 학술(ABM·HUMSS·STEM·GAS), 기술직업(TVL), 스포츠, 예술 트랙 중에 선택할 수 있다.
- TESDA: 기술교육기술개발청(TESDA)이 기술·직업 교육 자격증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 사립학교 비중: 전체의 약 30%가 사립학교이며, 특히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국가 개관

- 필리핀은 7,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로 면적은 한반도의 약 1.3배 크기이며 국민의 약 80% 이상이 가톨릭을 믿고 있다.
- 말레이계가 주를 이루며 중국계 계통도 있으나 여러 종족간의 혼혈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소규모 부족 국가나 술탄 국가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가 스페인의 진출 이후 비로소 중앙집권적인 통일 국가가 되어 1565년에서 1898년까지는 스페인, 이후 1946년까지는 미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 스페인으로부터 종교와 행정시스템, 그리고 미국식 공교육 제도의 영향을 받아 영어 사용이나 학제 기반이 마련되었다.

□ 한국-필리핀 관계

- 필리핀과 한국은 1949년 3월 3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한국전쟁에 7,420명이 참전했으며 양국간의 방문외교가 빈번하고 국제사황서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을 지지하는 국가이다.
- 경제교류 규모 (2025년)

- 한국과 필리핀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효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점으로 교역, 투자, 대형 인프라 및 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국의 교역 규모는 150억 달러에 달하며 주로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을 수출하며 니켈, 구리 등의 핵심 광물이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FTA가 발효됨으로써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 등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어서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필리핀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한국의 공적 자금이나 기업의 참여가 활발하여 대형 국책 사업에 한국이 중추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또한 한국은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적교류가 활발하다. 반대로 동남아 국가 중에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가 필리핀이다.
- 2023년 기준 144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필리핀을 방문했으며 어학연수와 은퇴 이민이 활발한 곳이고, 제조업, 서비스, 건설, 금융 등에 많은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 진출해 있다.
- 한국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유학생 규모
- 필리핀은 매년 약 49,000명 이상의 학생이 해외로 유학하며, 주요 목적지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필리

핀의 유학 목적국 순위에서 일본보다 낮은 7위이며, 필리핀 학생이 해외에서 주로 선호하는 전공은 간호학, 보건의료, 경영학, 호텔관광, 공학, IT/컴퓨터과학 등 이다.

구분	인원	비중	주요 특징
전체	662명	100.0%	
남성	266명	40.2%	여성보다 낮은 비중
여성	396명	59.8%	
전문학사	27명	4.1%	규모가 매우 작음
학사	139명	21%	
석사	173명	26.1%	대학원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박사	169명	25.5%	
대학원 합계	342명	51.6%	석사·박사 합산 기준
대학부설 어학연수	121명	18.3%	단기 교육과정 참여
교환학생	97명	14.7%	대학 간 교류 수요 참여
어학연수+교환학생	218명	32.9%	단기 체류형 교육교류 존재

표 9 한국 거주 필리핀 유학생 현황 출처: 법무부 출입국 정보화 센터

- 한국 학생의 경우 주요 대학별로 보면 UST(University of Santo Tomas)에서 중국 다음으로 2위, DLSU(De La Salle University)와 CPU(Central Philippine University)에서는 한국이 1위 유입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호학, 국제학, 경영학 등의 학위과정에 있는 한국 학생이 있지만 단기 교환이나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유입되어 있는 한국 학생 비중이 높은 편이다.

구분	인원	비중	주요 특징
전체	144명	100%	필리핀에 유학 중인 한국인 총규모
학위과정 합계	144명	100%	전체의 100%로 학위 취득 중심
학부과정	87명	60.4%	
대학원과정	57명	39.6%	
어학연수	0명	0%	어학연수가 공관 통계에서 취합이 안 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다수 존재
기타연수	0명	0%	

표 10 필리핀 과정보별 한국인 유학생 현황 출처: 재외공관

- 필리핀 학생은 주로 정부초청장학생(GKS) 참여 증가, 대학원 과정 지원, 한국어 교육 수요 등으로 한국에서 유학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공학, 정보통신, 데이터과학, 경영학, 교육학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202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유학하는 필리핀인은 어학연수 145명, 대학 189명, 석사과정 260명, 박사과정 129명, 기타연수 53명으로 총 776명이다. 학사 및 석사 과정에는 인문사회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박사과정에는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한국과 필리핀 주요대학은 교환학생 및 복수 학위 협정을 운영하고 있다.

□ 교육 기관 및 특징

○ 필리핀 학교제도의 특징

- 필리핀은 기존의 초등 6년, 고등 4년을 거치면 대학에 들어가는 학

제 대신에 초등 6년, 중등학교(junior high school) 4년, 고등학교(senior high school) 2년의 12년 학제로 바뀌게 되었다. 질 높은 노동 인력을 공급하고 기초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상대적으로 높은 학령 인구를 보유하지만 학교 수는 그만큼 미치지 못하여 과밀 학급과 과대 학교가 많은 편으로, 학급당 40~50명이 넘는 경우나 2부제 이상의 수업을 하고 있는 공립학교가 많은 편이다.
- 필리핀 학생들은 자국어인 필리핀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등의 주요 교과목과 MAPE(Music, Arts, Physical Education)라 불리는 예체능 교과를 배우고 있다.
- 영어 교과의 경우는 학생 간의 수준차가 매우 심한 편이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국 차원의 입학시험 대신에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 교육 거버넌스

- 필리핀 교육부는 크게 다음 세 가지 행정 기구로 분할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교육부(DepEd: Department of Education):는 유치원 및 K-12 기초 교육 전체 및 대안 학습 시스템(ALS)을 총괄하고 공립 및 사립 학교의 표준 교육과정 수립, 교원 관리, 기초 교육 전반의 예산 집행과 정책 승인을 담당한다.

- 기술교육기능개발청(TESDA: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은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TVET)과 비 학위 기술 과정을 관장하여 중퇴 청소년 및 성인, 현장 근로자를 위한 직업 훈련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 및 인증을 발급한다.
- 고등교육위원회 (CHED: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는 대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포함한 고등 교육(Tertiary Education) 체계를 규제하여,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의 학위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교육 질적 평가를 담당하며, 고등교육기관의 정책 표준을 수립한다.

□ 학제 개요

- 필리핀은 2013년 K-12 교육개혁을 통해 기존 10년제(초등 6년 + 중등 4년)에서 현재의 13년제(유치원 1년 + 초등 6년 + 중고등 6년) 체제로 전환함. 공용어는 필리핀어(Filipino)와 영어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어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이 특징이다.
- 영유아, 기초(초등교육)교육
 - 필리핀의 영유아 기초교육(ECCD: 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은 출생부터 만 4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건강·영양·조기학습을 통합한 서비스와,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유치원(Kindergarten)으로 구성된다. 필리핀이 시행하고 있는 K to 12 기초 교육에 유치원(Kindergarten)이 초등 교육 이전 단계로 편성되어 있다.
 - ECCD는 교육, 건강, 영양, 보호 및 부모 교육을 통합한 국가 프로그램으로 아동발달센터(CDC: Child Development Center),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가정 방문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영양 및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유치원(Kindergarten)은 2012년 “유치원 교육법(Kindergarten Education Act(Republic Act No. 10157))”이 시행되면서 만 5세

유치원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모든 아동은 Grade 1 입학 전에 유치원을 이수해야 하며 공립학교에서는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교육은 놀이 중심(play-based)으로 운영되며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활동 중심으로 운영한다.

-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DepEd)가 유치원 교육과정 개발, 공립 유치원 운영, 교사 배치 및 평가를 담당하며 영유아기초교육위원회(ECCD Council)는 국가의 영유아기초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인증하며 교사 및 보육인력을 양성한다. 사회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DSWD)는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영유아를 보호하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Units, LGUs)는 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고, 보육교사를 고용하며 지역사회 영유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필리핀의 초등교육(Elementary Education)은 1학년(Grade 1)부터 6학년까지 총 6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만 6세에 1학년에 입학하며, 그 이전에 1년의 의무 유치원 과정(만 5세)을 이수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1987년 필리핀 헌법」과 기초교육향상법(Enhanced Basic Education Act of 2013(Republic Act No. 10533))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공립학교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교육은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 함양뿐 아니라 인성, 시민의식, 과학적 사고력, 디지털 역량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

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교과는 Mother Tongue(지역 언어를 활용한 기초 문해교육), Filipino(국가 공용어 교육), English(영어 읽기·쓰기·의사소통), 수학, 과학(3학년 또는 4학년부터 본격 운영), Araling Panlipunan(사회,역사,문화,지리), Edukasyon sa Pagpapakatao(인성 및 시민 교육), MAPEH(음악·미술·체육·보건), EPP/TLE(생활기술 및 기초 직업교육)이다.
- 필리핀은 다언어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국어중심다중언어교육(MTB-MLE: Mother Tongue-Based Multilingual Education) 정책을 도입하여 초기 학년에서는 지역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읽기와 쓰기를 익히도록 하며, 이후 필리핀어와 영어의 비중을 점차 확대한다.
- 초등학교는 일반적으로 매년 약 200일의 수업일수를 운영하며, 학사 일정은 교육부가 매년 조정한다. 대체로 6월 개학, 다음 해 3월 종료하는 일정으로 운영한다. 수업은 대부분 주 5일제로 운영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오전·오후반 또는 복수 교대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 유치원교사 및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학 학사(Bachelor of Elementary Education 등)와 교원자격시험(LET: Licensure Examination for Teachers) 통과를 거쳐 교육부의 임용절차를 거친다. 데이케어센터 인력은 지방정부에서 채용하고 영유아기초교

육위원회 또는 사회복지개발부의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 중등교육

- 필리핀의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은 Junior High School (중학교) 4년과 Senior High School(고등학교) 2년으로 구성되는 총 6년 과정이다. 2013년 기초교육향상법(Enhanced Basic Education Act(Republic Act No. 10533))의 시행으로 기존 10년제 기초 교육이 12년제로 개편되면서 Senior High School(Grade 11~12)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 중등교육은 학생들이 기초 학력을 심화하고, 고등교육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특히 Senior High School에서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열(Track)을 운영하고 있다.
- 중학교(Junior High School)는 모든 학생이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주요 교과에는 필리핀어(Filipino), 영어, 수학, 과학, 사회(Araling Panlipunan), 인성·시민교육(Edukasyon sa Pagpapakatao), 음악·미술·체육·보건(MAPEH), 기술 및 생활(TLE: Technology and Livelihood Education)이 있다. TLE는 정보기술, 가정, 농업, 산업기술 등 실생활 및 직업기초 교육을 포함한다.
- 고등학교(Senior High School)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

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특징으로, 모든 학생은 공통과목(Core Subjects)을 이수한 후,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계열(Track)을 선택한다.

- 공통과목(Core Subjects)으로는 구두 의사소통(Oral Communication), 독해 및 작문(Reading and Writing), 의사소통 및 연구(Komunikasyon at Pananaliksik), 일반수학(General Mathematics), 통계 및 확률(Statistics and Probability), 지구및생명과학(Earth and Life Science), 물상과학(Physical Science), 자기개발(Personal Development), 현대필리핀예술(Contemporary Philippine Arts), 체육 및 보건(Physical Education and Health) 등이 있다.
- 진로 계열(Tracks)로는 Senior High School에서는 주로 네 가지 계열을 운영한다. 대학진학준비 계열(Academic Track)에서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기술-직업-생계(TVL: Technical-Vocational-Livelihood)에서는 직업기술교육, 취업 또는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예술및디자인 계열(Arts and Design Track) 계열에서는 예술교육, 예술대학, 문화산업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스포츠 계열(Sports Track)에서는 스포츠 전문교육, 체육계 진출 관련 교과를 운영한다. |
- Academic Track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ABM(경영·회계·비즈니스), HUMSS(인문사회), GAS(일반교양)(General Academic Strand) 등 네 개의 전공으로 나뉜다. TVL Track은 취업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ICT, 관광서비스, 호텔·외식, 농업, 수산, 전

기·전자, 자동차, 용접, 미용, 의류 등이 포함된다. 많은 학교가 기술교육기능개발청(TESDA)과 연계하여 국가기술자격(National Certificate)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 학사학위 및 교직과정 이수
가 필요하며 교원자격시험(Licensure Examination for Teachers,
LET)을 합격한 뒤 교육부(DepEd)의 임용 절차를 밟는다. Senior
High School에서는 산업체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직업교육 분야
교사로 채용되는 사례도 있다.
- 그 외에 과학고등학교(Science High School), 예술고등학교(Arts
High School), 체육고등학교(Sports High School), 기술직업고등
학교(Technical-Vocational High School) 등의 특수 목적을 갖고
설립한 기관이 있다. 특히 필리핀과학고등학교(Philippine Science
High School System)는 과학영재교육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 고등교육

- 필리핀의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은 중등교육(Senior High
School) 졸업 이후 진학하는 교육단계로, 학사(Bachelor's), 석사
(Master's), 박사(Doctoral) 과정과 다양한 전문학위 및 단기과정
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은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과 연구·혁신을
담당하는 핵심 분야로, 대학의 자율성과 국제화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 필리핀 대학의 진학 기준은 12년제 정규 교육과정 이수, 대학 입학시험 통과, 영어 능력 요건 충족이 핵심이다. 한국을 포함한 12년제 정규 교육과정을 마쳤거나, 필리핀의 K-12 교육과정에 따른 시니어 하이스쿨(Senior High School, 11~12학년) 과정을 수료해야 하고, 해외(한국 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D)의 학력 인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필리핀 주요 대학들은 자체 입학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합산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예를 들어 주요 대학은 UPCAT(필리핀 대학교 입학시험), ACET(아테네오 대학교 입학시험), DLSUCE(라살 대학교 입학시험) 등의 별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유생은 SAT, GCE(영국 교육과정), IB 디플로마 등 국제 공인시험으로 대학 입학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인 및 유학생에게 공인어학성적을 요구한다. 필리핀 의대는 4년제 학사 학위를 먼저 취득한 후 지원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 개념으로 의대 입학 전 반드시 NMAT(National Medical Admission Test)을 응시하고 통과해야 한다.
- 필리핀의 고등교육은 CHED를 중심으로 한 대학 교육과 TESDA를 중심으로 한 기술·직업교육이 병행되는 이원적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영어 기반 교육, 미국식 학사 운영, 성과기반교육(OBE), 국제화 지향 정책을 통해 ASEAN 지역에서 경쟁력을 높

이고 있다.

□ 고등교육 제도

○ 입시제도

- 필리핀의 일반적 신입생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학력	Senior High School(Grade 12)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연령	별도의 연령 제한 없음
성적	고등학교 성적표 제출
입학시험	대학별 입학시험 또는 평가
기타	면접, 에세이, 추천서(일부 대학)

- 필리핀 대학 입시는 대학별 자율전형으로 운영되는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성적, 대학별 입학시험, 면접(일부), 에세이(일부), 특별 활동 등이 포함된다. 대학마다 평가 비율이 다르지만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별 입학시험 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대학	입학시험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UPCAT
Ateneo de Manila University	ACET
De La Salle University	DCAT
University of Santo Tomas	USTET
Polytechnic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UPCET

- 각 대학 시험에서는 영어, 수학, 과학, 독해, 논리적 사고, 추론 능력 등의 과목에서 평가한다.
- 외국인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여권, 입학허가서, 재정증명, 영어 능력 증빙, 학생비자가 필요하며, 의학이나 치의학 등의 일부 전공은 CHED의 추가 승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을 받는 대학은 CHED와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유학생은 SAT, GCE(영국 교육과정), IB 디플로마 등 국제 공인시험으로 대학 입학시험을 대체할 수 있어, 예를 들어 UP는 SAT 1270점 이상 (수학 620, 읽기/쓰기 650) 또는 IB 디플로마 요구)을 요구하며, 외국인 및 유학생에게는 공인어학성적을 요구한다.

○ 고등교육 학위체계

- 필리핀의 학사(Bachelor's Degree) 과정은 보통 4년이며 일부 전문직의 경우는 5~ 6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학위는 인문사회의 경우 BA (Bachelor of Arts), 자연과학은 BS (Bachelor of Science), 경영은 BSBA, 교육은 BSEd 또는 BEEd, 정보기술은 BSIT, 공학은 BS Engineering, 간호는 BS Nursing 학위를 취득한다.
- 석사과정(Master's Degree)은 일반적으로는 1.5~2년, 일부 연구 중심과정은 3년 이상이 필요하며 졸업을 위해서는 전공 교과목 이

수/종합시험(comprehensive examination) / 논문(thesis) 또는 프로젝트 등이 필요하다. 인문사회는 MA, 자연과학이나 공학은 MS, 경영은 MBA, 행정은 MPA, 교육은 MEd를 취득한다.

- 박사과정은 일반적으로 3~5년이 필요하며 전공과목이수/ 종합시험/ 연구논문(dissertation) 작성/ 구술심사(defense) 등이 필요하다. 일반학문은 PhD, 교육학은 EdD, 경영학은 DBA, 행정학은 DPA를 취득한다.
- 일부 분야는 학사 이후 전문직 교육과 국가시험 통과가 필요하여 의학(MD)은 학사 후 4년, 치의학(DMD)은 전체 6년 내외, 법학(JD)은 학사 후 4년, 수의학(DVM)은 전체 6년 내외의 교육이 필요하다.
- 전문대학은 준학사(associate degree) 및 기술·직업교육(TVET) 과정이 있다. 준학사 과정(associate program)은 2~3년 과정으로 대학(college), 연구소(institute), 또는 일부 종합대학(university)이 운영하며 이수 후 컴퓨터(Associae in Computer Technology), 호텔및레스토랑 경영(Associate in Hotel and Restaurant Management), 경영(Associ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 등의 학위를 취득한다.
- 기술직업교육(TVET)은 필리핀 기술교육및기능개발청(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이 운영하는 것으로 6개월에서 2년 동안 자격증(certificate) 또는 국가기술자격

(national certificate)을 부여한다. 용접, 자동차 정비, 관광/호텔, 정보기술, 전기설비 등의 과정이 있다.

○ 고등교육 학위 발행 기관

- 필리핀의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EIs)은 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크게 국공립 고등교육기관(Public HEIs)과 사립 고등교육기관(Private HEIs)으로 구분된다.

기관 유형	기관 수	비율(약)	설립·운영 주체
국립대학(State Universities and Colleges, SUCs)	113	5.7%	중앙정부
지방대학(Local Universities and Colleges, LUCs)	137	6.9%	지방정부(LGU)
기타 정부기관 대학(Other Government Schools, OGS 등)	13	0.7%	중앙정부 특수기관
사립 고등교육기관(Private HEIs)	1,714	86.7%	종교법인·학교법인·민간
합계	1,977	100%	

표 14 필리핀 고등교육 현황(CHED 2024)

※ 최근 CHED가 발표한 2025 - 2026학년도(AY 2025 - 2026)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에는 총 2,355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 필리핀 고등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체제이다. 공공(Public HEIs) 고등교육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설립·운영하고 민간(Private HEIs)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종교

계 및 민간재단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간기관은 전체의 약 85~90%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사립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 국립대학(SUC)은 의회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어 등록금이 매우 저렴하거나 무상(Free Higher Education Act 적용)이며 연구 중심 기능이나 지역 혁신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공립대학(LUCs: Local Universities and Colleges)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Unit)가 설립하는 것으로 지역 인재 양성, 지역 산업 연계를 목적으로 지방정부 재정이 지원됨으로써 등록금이 비교적 낮다. 그 외에 필리핀군사학교(Philippine Military Academy), 필리핀공공안전대학(Philippine Public Safety College), 필리핀국방대학(National Defense College of the Philippines)은 특수 목적을 가진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대학이다.
- 필리핀 사립대학은 필리핀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종교계(Sectarian)와 비종교계(Non-sectarian) 학교로 나뉜다. 특히 가톨릭계 대학의 비중이 높으며, 영어 기반 교육과 국제협력에서 강점을 보인다.

기관 유형	학생 수	비율
사립 HEIs	약 1,832,800명	53.8%
국립대학(SUCs)	약 1,321,800명	38.8%
지방대학(LUCs)	약 248,700명	7.3%
기타 정부기관	약 5,100명	0.1%
합계	약 3,408,000명	100%

표 15 필리핀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 (CHED 2020)

- CHED 통계(2019 - 2020학년도)에 따르면 고등교육 등록 학생은 약 340만 명이며, 기관 유형별 분포는 위와 같다. 비록 기관 수는 사립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최근에는 무상 고등교육 정책의 영향으로 국립대학(SUC)의 학생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한 필리핀 고등교육기관은 질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 받고 있다. 우선, 많은 대학들이 소수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어 종합대학의 성격을 가지는 곳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고등교육기관들은, 경영학, 공학, 교육, 의료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지 않다. 경영학이나 의료, 교육/사범교육 그리고 IT 및 공학관련 계열에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는 반면,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학생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편중 현상은 석사나 박사과정으로 진행될수록 더욱 증가하여 동

일한 비교에서 네 영역에 등록된 학생은 전체 학생 중의 79%에 달한다. 이는 취업률이 좋다고 기대되는 소수 학과 중심으로 작은 규모의 대학을 개설하고 학생을 모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간호사나 기술관련 자격증은 해외진출에 유용하기 때문에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필리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수요는 현저히 낮게 나타남에 따라 필리핀 대학교육의 초점이 국내산업 보다는 해외진출을 위한 수요에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고등교육 주요 제도

- 필리핀 대학에서의 성적은 1.0이 최고점, 5.0이 낙제점인 역방향 척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매우 다르다. 1.0이 Excellent이며 1.25, 1.5, 1.75, 2.0, 2.5, 2.75, 3.0, 4.0, 5.0 등의 등급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3.0이 합격의 최저점이며 4.0을 부여 받은 사람은 조건부(conditional)로 학점을 받게 된다. 다만 DLSU, FEU 등의 일부 사립 대학은 미국식 GPA 체계를 사용하여 4.0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부여하고, 3.5, 3.0, 2.5, 2.0, 1.0, 0 순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필리핀에서는 일반적으로 졸업을 위해서는 120~150 학점이 필요하며, 공학이나 간호학 등에서는 150 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 필리핀의 학기는 가장 일반적으로, 8월에서 12월까지 시작하는 1학기, 1월에서 5월까지의 2학기, 그리고 6월에서 7월까지 방학 중

개설되는 여름학기로 구분된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3개 학기로 운영되어, 8~11월, 11~3월, 3~7월로 학기가 구분된다. Mapua 대학의 경우에는 공학이나 IT 계열에서 4학기제를 운영하기도 한다.

○ 고등교육 질 보장 제도

- 필리핀의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DepEd)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관리하는 기관으로 K-12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사립 초중등학교를 감독하며 교수 정책 및 연수를 제공함. 대안교육(AL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평가 및 교육 품질관리도 담당함. 즉 필리핀의 의무 교육 전체를 담당하는 기관임.
-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는 대학 및 대학원 정책 수립, 대학 설립 및 인가, 학위과정 승인, 대학 평가 및 품질보증, 장학사업운영, 국제협력 및 대학 국제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국립대학, 사립대학, 대학원을 관할함. 이 고등교육위원회는 1994년 공화국법(RA7722)으로 설치하여 교육부와는 별도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독립적인 위치에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관장하도록 함.
- 기술교육및기능개발청(TESDA)은 TVET 정책, 국가기술자격 부여, 직업 훈련기관 인증, 산업수요 기반 훈련과정 개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함. 주로 전문기술교육, 직업훈련, 단기 자격과정을 담당함.

- 전문직규제위원회(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 PRC)는 국가자격시험 시행, 전문직 명허 발급, 면허 갱신 및 관리를 담당하여 간호사, 교사, 회계사, 건축사, 물리치료사 등의 자격 시험을 관장함.
- 한국의 대교협과 같은 대학 관련 협의 기구는 여러 협회로 나뉘어 있음, 우선 국립대학이 회원인 필리핀국립대학협의회(Philippine Association of State Universities and Colleges, PASUC)는 국립대학 공동현안 대응, 정부 정책 건의, 대학 간 협력, 총장 협의회 구성 등의 역할을 수행함. 필리핀대학협의회(Philippine Associ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PACU)는 사립대학협의체로 사립대학 권익 대변, 정부 정책 협의,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립 대학 및 전문 대학이 회원임. 지방정부가 설립한 대학 및 전문대학은 지방대학협의회(Association of Local Colleges and Universities, ALCU)가 있어 지방대학 정책 협의, 품질보증 지원, 재정 지원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필리핀의 대학 평가나 인증을 담당하는 기구도 여러 개로 분화되어 있음. 대표적인 민간 대학 평가기관으로는 필리핀학교및대학평가위원회(Philippine Accrediting Association of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가 있으며 학과 인증, 대학 품질평가, 프로그램 인증 등의 역할을 수행함. 이 위원회에는 주로 가톨릭계 및 사립대학이 주로 참여함. 사립대학 협의회에는 PACU 산

하에 필리핀대학평가위원회(Philippine Associ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Commission on Accreditation)이 있어 교육 과정 인증, 대학 품질관리, 기관 평가 등을 담당함. 국립대학은 필리핀국가인가대학평가위원회(Accrediting Agency of Chartered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Philippines)가 있어 국립대학 프로그램 인증, 기관평가,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함.

- 필리핀에서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정부는 특별한 법적 절차적 결함이 없는 이상 이를 승인(recognition)하며, 이는 곧 법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정부의 승인(recognition)은 단순히 기관의 법적 등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인증(accreditation)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는 정책적으로 각 고등교육기관들로 하여금 기관 및 프로그램 별로 공인된 교육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accreditation)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 즉 운영의 자율권, 각종 교부금 및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 60여 개가 넘는 학교인증기구를 가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필리핀에는 사립/공립, 종교/비종교 부문들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생겨난 인증기구가 5개 존재한다. 1957년 주로 가톨릭 교육기관이 주축이 되어 필리핀학교/대학/대학교인증연합(Philippine Accrediting Association

of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PAASCU)이 필리핀 최초의
고등교육 인증기관이 되었으며, 이후 비종교 교육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1973년 필리핀대학/대학교인증위원회(Philippine Associ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Commission on Accreditation,
PACU-COA)를 구성하였고, 1976년에는 주로 프로테스탄트 계열 교
육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기독교학교/대학인증연합(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and Colleges-Accrediting Agency, ACSC-AA, 현
재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Accrediting Agency, Inc, ACSCU-AAI로 변경)을 구성했다.

- 1989년에는 공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을 위해, 필리핀 공립대
학/대학교인증기관(Accrediting Agency of Chartered College
and Universities in the Philippines, AACCU)이 설립되었고,
1995년에는 필리핀인증기관연맹(Federation of Accrediting
Agencies of the Philippines, FAAP)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 인증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위원회가 요구하는, 물리적 시
설의 적절성, 도서관, 강의의 질, 교수진의 학문적 자격, 프로그램
교과과정, 학생조직 등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하여 각 단계별 수
준을 정한다.
- 1단계(Level 1)를 획득하면 인증지원자 자격이 부여된 것으로 간
주되고, 2년 이내에 정식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
단되는 기관/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단계(Level 2)를 획득하면 정

부의 모든 행정적인 통제에서 자유로우며, 일부 교과과정에 대한 자율적 운영권과 각종 재정지원, 그리고 교수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배정받는 데 우선권이 부여된다. 3단계(Level 3)를 획득하면 모든 교과 과정의 자율적 운영권이 부여되며, 원거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4단계(Level 4)를 획득하면 고등교육개발 기금의 지원과 보조금을 획득할 권한이 부여되며, 정부의 감독과 통제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 4단계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대학들의 프로그램과 견줄 수 있는 교육의 질을 실현하는 기관에 부여함. 4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관 프로그램의 75% 이상이 최소한 십 년 동안 3단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연구 성과를 국내는 물론 국제 학술지에서 등재해야 하고, 졸업생이나 동문들이 가르치거나 배우는데 탁월함을 보여 줘야 하며, 지역발전이나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고등교육 국제화

- 필리핀은 매년 약 49,000명 이상의 학생이 해외로 유학하며, 주요 목적지는 호주, 캐나다, 미국임. 캐나다 기준으로 필리핀은 인도·중국에 이어 3위 유학생 송출국으로, 2023년 48,870명을 보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임. 호주에서도 4위로, 2024년 48,300명이 재학 중이며 이는 2023년 대비 194%, 2019년 대비 469% 급증한 수준이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필리핀의 유학 목적국 순위에서 일본보다 낮은 7위이다. 필리핀 학생이 해

외에서 주로 선호하는 전공은 간호학, 보건의료, 경영학, 호텔관광, 공학, IT/컴퓨터과학 등이다.

- 필리핀 정부는 고등교육 국제화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며, CHED(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어를 주요 교육언어로 사용하고 등록금과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주요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2023 - 2024학년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약 17,200명으로 집계되어, 인도(8,973명), 중국(5,334명), 나이지리아(838명) 순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수도권(National Capital Region)의 주요 사립대학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필리핀 대학은 영어를 활용한 수업 운영, 미국식 교육과정과 학위체계, 저렴한 등록금과 생활비, 의학, 간호학, 치의학, 경영학 등의 경쟁력, ASEAN 역내 교육 허브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장점이다.
- 그러나 유학생 지원체계 미흡, 학업 적응, 상담, 생활지원 등 국제학생 서비스의 체계화 등에서 미흡하며, 외국인 유학생이 일부 대도시 사립대학에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난다. 교육의 질 관리와 국제적 평판 제고가 지속적인 과제이며 최근 외국인 학생 증가에 따라 학생비자 관리와 외국인 학생 관리체계의 투명성 등에 대해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 평생교육/직업교육

- 필리핀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체제는 대안학습체제(ALS)를 통해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TESDA 중심의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직업교육이 국가자격과 직접 연계되어 취업과 해외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은 필리핀의 중요한 강점이다.
- 필리핀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은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과 기술·직업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일반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위원회(CHED)가 담당하는 반면, 직업교육은 기술교육기능개발청(TESDA,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이 총괄하는 이원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 대안학습체제(Alternative Learning System, ALS)는 초·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문해교육과 기초교육을 제공하며, 평가를 통과하면 정규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성인 문해교육(Functional Literacy Programs)은 읽기·쓰기·기초수리 능력과 생활기술을 교육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NGO)가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과 시민교육을 운영한다.
- 직업교육(TVET)은 TESDA가 국가 차원에서 정책 수립, 자격제도

운영, 교육기관 인증 및 품질관리를 담당한다. 교육은 TESDA 산하 훈련기관뿐 아니라 공·사립 직업훈련기관, 일부 대학과 기업 훈련센터에서도 제공된다. TESDA는 국가기술자격(National Certification, NC)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교육과정 이수 후 실기 중심의 역량평가(Competency Assessment)를 통과하면 국가자격을 취득한다.

□ 국가 이슈

- 필리핀에서는 최근 K-12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치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즉 SHS가 취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고,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대학 과정과 중복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교육부는 K-12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강화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 기준과의 학제 정합성 또는 해외 취업 및 대학 진학 호환성 때문에 완전 폐지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 영유아 · 초 · 중등교육 정책 및 이슈

- 교육과정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K to 12 과정을 개편한 'MATATAG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유치원부터 10학년(중학교 과정)까지 읽기, 수학, 과학 등 필수 기초 학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함. 지나치게 복잡했던 기존 학습 영역을 단순화하여 학생들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 필리핀은 2013년 기존의 유치원(Kindergarten) 1년 + 초등학교(Elementary) 6년 + 주니어 하이스쿨(Junior High School) 4년 + 시니어 하이스쿨(Senior High School) 2년으로 구성된 것을

11~12학년(Senior High School) 과정을 도입하였다.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목표로 한 전문 기술 교육(Academic, Technical-Vocational-Livelihood 등)을 제공하려는 의도였다. 기존 10년 교육이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고교 졸업생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 기존 K-12 제도를 유지하되, 내용을 대폭 개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학생 부담 감소, 기초학력 강화, 취업 연계 강화를 추구함. 학습 내용 약 70% 축소하고 암기식 내용을 감소하며 읽기·쓰기·수학 같은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학년별 난이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초등 저학년에서는 문해력(literacy)과 수리능력(numeracy)을 강조하고자 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 최근 읽기 및 수학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20%가 안 되며 90% 이상의 아동이 10세까지 간단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learning poverty’ 경험했다고 한다. 이처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필리핀 학생들의 성적이 낮게 나온 점이 제도 변화의 배경이다.

- 2022년 PISA 2022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은 81개국 중 77위를 차지했으며 읽기는 79위이었다. 수학은 355점, 읽기 347점, 과학 356점이었으며 성취수준(Proficiency)은 16% 학생만 수학 분야

Level 2 성취수준(OECD 평균 69%)을 기록했다. 창의적 사고 (Creative Thinking)에서 필리핀은 60점 만점에서 14점(OECD 평균33점), 성별학업성취도(Gender Performance)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학은 14점, 읽기는 35점 높았다.

- 최근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 11~12학년(SHS) 개편으로, 기존 SHS는 과목 수가 지나치게 많고 취업 연결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새로운 SHS 교육과정이 시범 운영되어 기존에는 2년 동안 약 30개 이상의 과목 이수였으나, 핵심 과목을 5개 정도로 축소하였다.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현장 실습(work immersion) 시간 대폭 증가하며 대학 진학·기술직·취업 맞춤형 경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학습 결손 및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ARAL(Academic Recovery and Accessible Learning)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2026 학기에는 대규모 학생과 교사를 투입하여 '읽기 능숙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학력 성취도가 급락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치원~10학년을 대상으로 방대한 보충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 고등교육 정책 및 이슈

- 공립 교육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 및 학사 시스템 개편을 논의 중이다.

- 기존의 2학기 체제를 폐지하고, 2026-2027 학년도부터 연간 3학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새로운 학기는 6월~9월 (69일), 9월~12월 (65일), 1월~4월 (67일)로 구성되어 총 수업일수는 201일로 한다. 2023-2024학년도에만 자연재해로 53일의 수업일수를 잃었고, 이로 인한 학습 차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각 학기 말에는 복습, 평가, 휴식 시간이 배정할 계획이다.
-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D)는 대학의 일반 교양 학점을 기존 36학점에서 18학점으로 절반 축소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취업 시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인문학·사회과학 과목이 통합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자율 대학에 GE 학점 상한선(36학점)을 설정하려는 시도이나, 1994년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학점 축소가 교육 질 향상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필리핀 교육부는 운영비 상승과 교실 부족 등 고질적인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2025년 교육 예산으로 1조 페소(25조)를 편성하고 교실 부족과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입양 프로그램' 등 민관 협력 모델을 활용하여 최신식 교사 준공 및 교육 인프라 현대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 CHED는 2016년 CHED Memorandum Order No. 55를 통해 필리핀 고등교육 국제화에 관한 전략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으며, 이는 이후 각 대학(HEI)들의 국제화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최근에는 이를 갱신한 "필리핀고등교육국제화로드맵 2023-2027(Philippine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ization Roadmap 2023-2027)"이 발표되어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홈베이스형 국제화(Home-based internationalization)”와 국경 간 국제화(Cross-border internationalization)를 추진하고 있다. 즉 해외 물리적 이동 없이 외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협력, 네트워킹, 학술 연계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방식으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안에 국제적 요소를 내재화하는 방법과, 유학·교환학생·해외 파견 등 학생, 교원, 프로그램, 지식이 실제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국제화의 실행 수단으로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 및 산하 서브네트워크·특화센터를 통한 협력, 국제 파트너십과 학생·교원 교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학술 이동성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교원의 해외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활용하고 있다. CHED Connect(온라인 교육자료 공유 플랫폼),

CHED HiEd Bayanihan(역량강화·자원공유를 위한 가상 협력 학습 환경)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초국가 고등교육 (TNHE, Transnational Higher Education)을 원격교육, 해외캠퍼스, 공동학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확대하고 있다.

□ 한국과의 시사점 및 정책 제안

분야	협력 제안	구체 사업
초·중등	교육행정 시스템 구축 관련한 개발협력모델 발굴	스마트교실 구축, AI 및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디지털 교과서 개발, ICT 기반 교육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
초·중등	한국의 디지털 교육혁신 경험 공유	필리핀의 원격 교육 및 도서 지역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초·중등	교사 역량 강화	현직 교사 연수, STEM 교육 연수, AI 활용 교수법 연수, 학교 관리자 리더십 교육, 교육과정 및 평가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
고등교육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제 운영	해양 및 수산,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ICT 및 인공지능, 바이오 및 보건, 재난관리 등의 분야에서 공동 학위와 대학원 공동 교육을 시행하여 학생 교류의 실질적 증가
고등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대학행정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품질보증체계 구축, 대학행정 역량 강화,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캠퍼스 조서 등에서 대학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고등교육	직업교육기관 간 협력	필리핀의 TESDA와 협력하여, 스마트 제조, ICT 기술교육, 해양기술, 관광 등에서 직업교육기관 간 협력

○ 초·중등교육 분야 협력 내용 및 정책 제안

- 필리핀은 최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기초 문해력·수리력 향상 프로그램 공동 개발, 학습 결손 회복(Learning Recovery) 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필리핀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스마트교실 구축, AI 및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디지털 교과서 개발, ICT 기반 교육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 또는 KOICA와 같은 정부 기구가 공적개발원조 형식으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교육혁신 경험은 필리핀의 원격교육 및 도서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필리핀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이므로, 현직 교사 연수, STEM 교육 연수, AI 활용 교수법 연수, 학교 관리자 리더십 교육, 교육과정 및 평가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APCEIU나 KOICA를 통해 국내 교원의 파견 또는 초청 연수를 통해 양국 간 교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 고등교육 분야 협력 내용 및 정책 제안

- 한국과 필리핀의 인적 교류에 비해 양국 교육기관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에는 700명 정도의 필리핀 유학생이 재학 중이고, 필리핀에는 2백여 명의 한국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는 어학연수나 단기 교환 학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많으나 양국의 사회문화를 학습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학생은 영어 연수 정도를 필리핀 대학 수학의 목표로 두고 있고, 필리핀 유학생의 경우 GKS와 같은 정부 장학 프로그램이 없다면 한국을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유학국으로 선택할 유인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방문교수 제도, 대학원 공동 교육 등을 통해 학생과 교수진의 실질적 교류를 증가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양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해양 및 수산,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ICT 및 인공지능, 바이오 및 보건, 재난관리 등이 유력한 분야가 될 수 있다.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개발, 품질보증체계 구축, 대학행정 역량 강화,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캠퍼스 조성 등에서 대학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리핀의 TESDA와 협력하여, 스마트 제조, ICT 기술교육, 해양기술, 관광 등에서 직업교육기관 간 협력도 가능한 방안으로 기대된다.
- 한국 대학은 영어 기반 공동교육과정 운영, 공동학위, 공동연구, ASEAN 대학 네트워크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